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6695

2018년 2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우리나라와 프랑스 미술교육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천 훈 경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우리나라와 프랑스 미술교육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Research for Improvement Methods through
France and Korea's Art Education
Comparative Analysis

2018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천 훈 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우리나라와 프랑스 미술교육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지도교수 박 상 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천 훈 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천훈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인 경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의 현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상 호 인

201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

Ⅱ. 미술교육의 의의 및 역할과 필요성 ····· 3

제1절 미술교육의 의의 ····· 3

A. 미술의 개념 ····· 3

B. 미술교육의 의미 ····· 4

제2절 미술교육의 역할과 필요성 ····· 6

Ⅲ. 우리나라 미술교육과 프랑스 미술교육 ····· 8

제1절 우리나라의 미술교육과정 및 흐름 ····· 8

A. 우리나라의 미술과 교육과정 ····· 8

B.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흐름 ····· 13

1.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특성 ····· 20

2.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현황 ····· 21

제2절 프랑스의 미술교육 ····· 24

A. 프랑스 미술교육의 흐름 ····· 24

B. 프랑스 미술교육의 특성과 현황 ····· 31

1. 프랑스의 교육체계 ····· 31

2.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 34

C. 프랑스 초등학교의 미술교육 ····· 37

D. 프랑스 중학교의 미술교육 ····· 40

E. 프랑스 고등학교의 미술교육 ····· 4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우리나라와 프랑스 미술교육의 차이점과 특성비교 ····· 47
제1절 우리나라와 프랑스 미술교육의 차이점 ····· 47
A.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 ····· 47
B. 미술교육에 대한 환경의 차이 ····· 48
C. 미술교육에 제도 및 정책의 차이 ····· 50
D. 미술교과서 및 미술지도서의 차이 ····· 51
제2절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개선방안 ····· 54

Ⅴ. 결론 ····· 61

참고문헌 ····· 6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1] 세가지 측면에서의 미술교육 ····· 6
[표 2]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화 ····· 8
[표 3] 목적에 따른 세 가지 중심의 미술교육 ····· 18
[표 4] 문화예술정책포럼 미술교육 대표자모임 지지선언문 ····· 23
[표 5] 1909년 교육 프로그램 개정내용 ····· 27
[표 6] 60년대 이후 프랑스 미술교육의 시대별 특징 ····· 30
[표 7] 프랑스의 일반적인 교육제도 ····· 32
[표 8] 프랑스의 문화예술프로그램수업 ····· 36
[표 9] 프랑스 초등학교의 학교 밖 예술 활동 ····· 38
[표 10] 중학교 조형예술 교과목 보조지침 ····· 41
[표 11] 프랑스 고등학교 예술교과목 ····· 46
[표 12]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 비교 ····· 48
[표 13] 미술교육에 대한 환경의 차이 비교 ····· 49
[표 14] 미술교육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의 차이 비교 ····· 50
[표 15] 미술교과서 및 미술 지도서의 차이 비교 ····· 52
[표 16] 우리나라 미술과 교육연구의 문제점 ····· 54
[표 17] 박물관·미술관 연계수업의 학습 기대효과 ····· 57
[표 18] 국내 등록미술관 총 현황 ····· 5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Research for Improvement Methods through France and Korea's Art Education Comparative Analysis

Hoon-kyoung Cheon
Advisor : Prof. Sang-Ho Park, Ph.D
Major in Fine Art Education
Graduation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talent that the modern 21st century is asking for is a person with knowledge and creativity. Therefore, people who can create new boundaries by looking into the future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and combining and developing the various fields they are interested in. In recent times creativity is a movement to answer the question of the talent required by the modern times, and the education for it.

Through this thesis, information about Korea and France's education and culture and art policies was examined, and various examples were found. It is clear that a lot of effort was put into the development on our art education even in social and political chaotic times, but because of not being able to settle the gap between reality and theory, and the coercion of a standardized cogitation the results were always below expectance. Even though these situations have improved a lot in the present there are still similar problems, and it haven't been rid of completely.

In contrast France, the best out of all the advanced countries of cultur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d art, has a art education method that is strikingly different from ours. The biggest difference is that in France, art has a bigger meaning and value than just education, and it grants various effects of education such as fostering the creativity, thinking ability, emotion and etc. of the children.

By understanding the value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backing the development for it France was able to achieve the national standing of an advanced culture and art country.

Comparing our country's art education with France's the problem in the education system can be found, and the effort to break from the limit of our students being aesthetically illiterate even after 12 year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rt education. Therefore, by studying the information of the last three years on how France's art education develops the students' abilities and insight, an appropriate alternative for our country's art education's problems will be suggested.

We hope that by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the culture and art period, people have more interest in art education, and more researches will be conducted so that art education can fulfill it's original purpose. Also we hope that the creative and structured education process can uprear many talents for our times, and become the driving force for developing other subjects other than art education.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1C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은 지식과 창의성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다. 따라서 세계의 경향은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 가고 있고,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미래를 앞서 보고 여러 영역의 관심 있는 분야들을 통합하고 발전시킴으로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최근 창의성에 관심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과 그 교육에 대한 의문에 답하고자 하는 움직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술교육이 제 역할을 잘 해내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날 그리고 현재 우리는 예술교육을 통해 자유로운 사고력이나 상상력을 넓혀가는 방법에 대해 어떠한 지도를 받았는가? 가장 자유롭게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어야 했던 미술수업 시간에도 정형화된 사고를 강요받지는 않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 예술교육은 나무와 사람 구름과 산 등, 곧 자연의 재연 능력에 따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현재 변화된 교육과정 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이와 유사한 문제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에 반해 문화 예술의 선진국 중 으뜸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예술교육 방법은 우리나라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 중 가장 큰 특징으로는 프랑스는 다양한 예술교육 중 미술에 단순한 교육의 의미를 뛰어넘은 큰 의미와 가치를 두고 아이들의 창의력, 사고력, 정서 함양 등의 여러 방면에서의 교육효과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의 미술교육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형화된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학생들이 초. 중등 과정의 미술교육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2년이나 받았지만 끝내 미적 문맹자가 되어버리는 한계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문화예술교육의 선진국인 프랑스의 미술교육이 어떻게 학생들의 안목과 능력을 계발하고 창의력을 신장하였는지에 대하여 고찰하되, 최근 3년 이내 현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미술교육과 프랑스 미술교육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프랑스 미술교육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에 대한 개념과 의의, 예술교육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미술과 교육과정과 흐름, 현황과 대비하여 프랑스의 미술교육과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미술교육의 의의(개념, 의미)와 목적, 역할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프랑스의 교육과정, 각 나라 미술교육의 특성 및 현황 연구를 차례로 서술하여 차이점과 특성을 비교하여 두 나라의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 환경의 차이, 제도 및 정책의 차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차이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는 앞서 제시한 차이 및 특성의 비교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논문 자료, 학술지, EBS교육방송에서 소개한 '프랑스 예술교육' VOD 등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미술교육과 프랑스 미술교육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미술교육의 의의 및 역할과 필요성

제1절 미술교육의 의의

A. 미술의 개념

예술 (art)은 회화와 조각 건축, 시, 음악, 무용 등의 총칭을 뜻하며, 미적가치를 지닌 객관적 대상을 창작하는 인간의 활동이나 그 소산을 말한다. 이 창작활동은 어떤 재료를 가공 또는 처리하는 기술적 활동으로 여겨지며, art나 Kunst도 본래는 기술이나 기(技)를 의미한다. 예술의 관념이 성립된 것은 서구는 근대에 들어서이며, 르네상스 무렵부터 회화나 조각, 시 그리고 음악이 같은 종류의 활동으로 의식되어 비교·대조되기 시작했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미적기술'이라 하여 다른 기술과 구별했다. 그 후로 미적기술이 예술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고대나 중세에서는 엄밀한 의미로 예술이나 예술가가 존재치 않았음에도 그 시대에 대해서 예술을 운운하는 것이 이 개념을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를 창조하는 기술로는 예술 중에서 시각미를 만들어내는 수공기술의 회화나 조각이 두드러지므로 쿤스트 아트란, 좁은 의미로는 음악이나 시를 제외한 회화나 조각 등의 소위 조형예술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미술이란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시대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인'예술(art)'은 미적기술 이나 학습되어진 특별한 능력을 의미한다.

예술에 대한 해석은 오늘날 세계 및 자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하여 색상이나 형태, 선, 소리, 율동 이 외의 여러 감각적인 현상들을 나열하는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과 관련된 것으로 전문화된 사회에서 미술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전문 용어로서의 미술은 시각적 감상으로 아름다움을 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현하는 시각 예술 (공간 예술, 조형예술) 로, 회화와 조소와 같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순수 미술, 응용미술 (공예, 건축), 생활환경 미술을 포함한 수준 높은 미술을 뜻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미술개념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이 상당히 다름을 볼 수 있는데, 미술이란 미적 본질과 특성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내용적인 측면과 방법적인 것도 서로 관련되어 문화의 본질적인 요소로 가정되어지고 있다. 인류학자들이 사회를 연구할 때에도 미술을 방향제시의 일부로 생각한다.

로제타석과 같은 미술은 종종 신앙, 관습, 신화 인류의 역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주기도 하며, 문자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회에서는 문자를 대신하여 삶의 내용이나 기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하며 기록하고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정의들에서 미술에 대한 의미를 하나로 모아보면, 미술이란 인간 내면의 감정과 정서, 지능이나 느낌 등을 시각성, 공간·조형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여 감상하는 것과 문화를 나타내는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B. 미술교육의 의미

미술 교육은 미술의 본질과 교육의 본질이 만나 이루어지는데, 이는 미술교과의 본질인 미적 체험자인 인간이 대상인 미술작품을 접하고, 대상을 이해하며, 미적 표현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미술교육은 미적 체험을 중심으로 한 미적인 앎을 일깨우고 다양한 조형적 사고와 질적 사고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술의 이해, 표현, 감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미적인 체험을 통해 대상이 가진 가치와 존재의 미를 깨닫고, 개성 있고 자유로운 표현으로 작품에 공감하는 일련의 직접적인 미적 체험의 과정과 관련된다. 미술에서의 사상이나 직관, 감정은 교육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주체성과 통하며, 창조와 가치는 잠재가능성 이나 가변성 및 진보와 통한다. 또한 미술에서의 조형형식 이란 것은 미술교육의 계획, 다시 말해 질서 및 합리주의와 통하기 때문에 미술교육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일맥상통한 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교육이란 것은 작게는 한 개인의 발전을 돕는 것이며, 나아가서 사회의 발전을 이룩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미술교과의 역할은 미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중요성을 인지함으로써 이를 교육현실에도 반영시키는 것이다. 미술교육은 미술품에 대한 지식과 미술적 유산, 문화 유산적인 요소와 형태가 어떻게 변형되고, 변화되어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문화의 다양성과 관련성, 공존성과 전개, 융합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작가들은 작품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관찰하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작가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작가만의 창의적이고 고유한 표현을 통하여 작품성과 작품의 내용, 기술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요구와 함께 우리가 놓인 위치와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을 접목하여 사고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것은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자신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작과정을 통해 표현하면서 관찰력이나 직관력, 사고력, 상상력, 표현력, 지각력, 창의성 등의 미적인 정서와 능력이 향상되며, 열린 사고를 지향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 개개인의 자기만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개개인의 가치관 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미술개념의 관점이 상당히 다름을 볼 수 있다. 미술은 미적 본질과 특성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내용도 서로 관련되어 문화의 본질적 요소로 가정되어지고 있다. 인류학자들은 사회의 연구를 할 때에도 미술을 하나의 방향 제시로 생각한다. 미술은 인류의 신화나 관습, 역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며, 문자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문자나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미술이 대신하여 문화를 표현하고 기록·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같은 정의 속에서 미술의 의미를 하나로 모아 본다면, 미술이란 인간 내면의 느낌이나 감정, 정서, 지능 등을 시·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이해, 감상하여 문화와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간의 내면은 사고와 이념, 논리, 내용 등의 표현의 주제와 관련되며, 표현 방법인 시각성과 공간성, 조형성을 갖춘 매체를 활용하여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즉, 어떤 것을 표현할 것인지 하는 표현주제와 , 어떤 것으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현할 것인지 하는 표현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미술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다음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1> 세 가지 측면에서의 미술교육

형식적 측면에서의 미술교육	미술은 시각예술, 공간예술, 조형예술로서의 독특한 형식을 이루는 데에 조형요소와 조형원리가 필요하다.
표현적 측면에서의 미술교육	미술은 인간 내면의 감정과 느낌, 생각, 정서들을 반영하여 미술의 형식을 형태로 창작하는 것이다.
감상적 측면에서의 미술교육	미술은 가치표현이며 미술의 형식과 표현을 통해 나타난 창작 작품의 가치를 음미하고 누리는 것이 미술의 감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술의 정의를 바탕으로 학교의 미술교육은 창조성, 정서성, 표현성, 감상 능력 등의 함양과 더불어 전인적인 인간형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제2절 미술교육의 역할과 필요성

교육과 미술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형성 이다. 즉 교육과 미술이 만나는 구심점은 '인간의 인간화'이다. 이것이 바로 미술교육이 성립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미적 경험이 인간을 인간화 한다는 것은 예술이 인간 본위의 노력이라는 말이다. 미술교육이 가지는 장점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 외에도 정보를 융합, 추리, 상상, 사고하는 능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체적인 형상으로 재현해 내는 능력 등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미술의 역할은 그 어떤 교과보다 크다. 이를테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생각과 자연스러운 표현능력, 또 복합적인 사고력, 창의력 뇌활동 등이 함께 발달할 수 있기에 미술교육은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한다.

미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미술은 자아표현의 방법이다. 학생들은 미술을 통해 자신들의 개성을 반영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미술을 통해 개개인의 성장을 나타내며 환경이나 세계, 그리고 그 자신들과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한다.

둘째로는 시지각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시각적인 사고와 공간적 지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교과는 미술이 유일하다. 문자와 언어 보다 시각 언어에 익숙해지고 있는 현상이 심화될수록 이를 토대로 모든 것을 분석적, 체계적, 수리적으로 보려는 사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로, 좌 ·우뇌의 균형 있는 발달이다. 일반적으로 좌 뇌는 현재 우리 교육에서 중요시하는 논리나 언어 등의 분석적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육 현장에서의 학생들은 좌 뇌적 기능에 너무 치우친 교육을 받게 되어 좌·우뇌의 균형 있는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뇌의 대표 기능인 직관, 시각, 종합, 감성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좌·우뇌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모하여 좌뇌에 치우쳐 있는 비균형적 발달을 저지해야한다.

넷째로는, 개성과 창의성의 육성을 들 수 있다. 이는 현 시대와 미래사회에서 가장 존중 받아야 하는 개인의 특성이며 미술은 이러한 개성과 창의성을 육성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교과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그 생명의 원천이다. 모든 예술이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름다움이 표현의 바탕을 이루고 즐거움이 표현의 과정이나 감상과정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우리나라 미술교육과 프랑스 미술교육

제1절 우리나라의 미술교육과정 및 흐름

A. 우리나라의 미술과 교육과정

<표 2>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화

제 1차 교육과정	▶ 시기 (1954-1963) : 교과중심 교육과정 ▶ 배경 · 한국의 6·25 전쟁과 휴전으로 국가가 사회복구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청 · 진보주의와 새 교육운동의 영향 · 전쟁을 전후하여 나타난 교육내용의 불합리성 제거 ▶ 특징 및 핵심 · 현 생활의 개선 및 향상에 따른 사회 개선의지의 강조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부흥, 미개발 사회 환경 발전) · 반공교육, 도의 교육 강조 (광복 후 사회혼란, 6.25 전쟁 후 도덕적 타락을 극복) · 실업 교육 강조 (실업교육이 30%이상을 차지) ▶ 과목 · 국어, 사회, 생활, 산수, 자연, 미술, 음악, 보건, 실과
제 2차 교육과정	▶ 시기 (1963-1973) : 경험주의 교육과정 ▶ 배경 · 1차 교육과정의 단편적인 지식주입에 편증, 인격도양에 소홀하고 실생활과 먼 학습에 대한 우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특징 및 핵심 · 가난을 극복, 경제적 효율의 증진을 위한 학습 (새마을 운동) · 반공정신의 투철, 민주적 생활의 발전을 위한 인간양성 학습 (ex. 똘이장군 (어린이 만화에서도 반공강조) · 독립자존의 민족적 기풍과 더불어 국제의 협조정신을 갖출 수 있는 학습 (외국 자본의 투자) ▶ 과목 · 국어, 사회, 산수, 자연, 미술, 음악, 체육, 실과, 반공 도덕 ('보건'이 '체육' 으로 바뀌고 '반공 도덕' 이 추가)
제 3차 교육과정	▶ 시기 (1973-1981) : 학문중심 교육과정 ▶ 배경 · 1968년 12월 국민교육현장의 선포로 인해 초등학교 지표가 명시됨으로써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 시작 · 계속되는 경제개발과 고도성장, 대내외적인 정치변동 ▶ 특징 및 핵심 · 국민 교육현실 이념을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 · 기본 개념을 중점적으로 지도 · 서구화, 산업화, 도시화 문제 해결을 고려 ▶ 과목 · 국어, 사회, 산수, 자연, 미술, 음악, 체육, 실과, 도덕 ('반공 도덕'이 '도덕' 으로 바뀜)
제 4차 교육과정	▶ 시기 (1981-1987) : 인간중심 교육과정 ▶ 배경 · 1980년 교육개혁조치와 제 5공화국의 출범 등의 사회적 변화 · 지나친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편향으로 교육효과 저하 ▶ 특징 및 핵심 · 미술경험을 통한 국민 정신교육의 강조 · 상상력, 자율성, 탐구적 태도를 길러주는 창의성 발달의 강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심미적인 심성의 계발·함양될 수 있는 미적 정서 강조 · 아동 발달의 특징과 미적경험의 내용을 체계화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 · 미술의 다양한 면모를 폭넓게 경험하도록 포괄성 강조 ▶ 과목 · 국어, 사회, 산수, 자연, 미술, 음악, 체육, 실과, 도덕
제 5차 교육과정	▶ 시기: (1987-1992) ▶ 특징 및 핵심 · 기초 교육의 강화: 언어, 수리, 사고력, 기초 체력, 도덕성 등 학습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학습을 강화 · 고도의 산업화·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 :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창조성, 주체성, 사고력, 판단력, 정보 처리 및 활용 능력 함양의 요구 ▶ 과목 · 초1-2학년의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추가 · 1교과 1교과서의 형식에서 벗어남 : 수학 익힘책, 국어 말하기·듣기, 읽기·쓰기
제 6차 교육과정	▶ 시기: (1992-1997) ▶ 특징 및 핵심 · 교육 과정 최초로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 및 재량 권한을 확대함 ·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재 육성이 목적 · 자주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 초등·중등학교의 미술 교육내용의 체계적인 연계성을 강조·구체화 · 미적 가치관의 정립과 미적 감성의 계발을 위한 감상지도 강화 ▶ 과목 · 1995년 11월 부분 개정 : 초 3-6학년 때 영어를 정규 교과로 신설 · 그 외 교과는 제5차 교육과정과 동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7차 교육과정	▶ 시기: (1997-2008) ▶ 특징 및 핵심 ·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 육성 ·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구성 :초등학교 1학년 - 10학년(고1) · 수준별 교육 과정 도입 ·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도입 : 학력 평가, 학교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 ▶ 과목 · 제6차 교육과정과 과목 동일함 (초등교과) · 컴퓨터 교육 강화
제 7차 개정 교육과정	▶ 시기: (2009-2013) ▶ 특징 및 핵심 · 교육 지식정보화·세계화 시대 →학교 교육을 통해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인간상 견지 ·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개성을 추구해 나가는 인간 · 폭넓은 교양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갖춘 인간 ·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 민주 시민 의식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간 ▶ 과목 · 제7차 교육과정과 과목 동일함 (초등교과)
2009 개정 교육과정	▶ 도입시기 · 2011년: 초등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1학년 · 2012년: 초등3·4년, 중학교2학년, 고교2학년 · 2013년: 초등5·6학년, 중학교3학년, 고교3학년 ▶ 특징 및 핵심 ·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이 10년(고1까지)에서 9년(중3까지)으로 축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용어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공통교육과정 · 선택중심교육과정→선택 교육과정 · 외국어(영어)→영어 · 재량활동, 특별활동→창의적 체험활동 ▶ 신설사항 · 학년군, 교과군 개념 ·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대함(교과(군)별 기준시의 20% 증감 운영 등) · 교과 교실제의 운영 및 활성화 유도 · 다문화 가정의 자녀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시·도 교육청 지원 사항 신설
2015 개정 교육과정	▶ 시기: (2018년부터 시행) ▶ 특징 및 핵심 · 창조경제 사회의 요구에 걸맞은 핵심역량을 함양한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 · 인문·사회·과학기술 능력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 ·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 ·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마련 (자기관리·지식정보·창의적 사고·심미적 감성·의사소통·공동체역량) ·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 토의·토론 수업, 실험·실습 활동 등 학생 참여 중심으로의 수업 방법 개선 · 과정 중심의 평가 확대 · 교육과정 및 수능·대입제도 연계, 교원연수 등의 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13년부터 적용·실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겉보기에는 교육계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본교과군의 축소와 집중이수제가 도입되어 과목의 수도 줄고 개별적으로 학교가 교육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편성할 권한을 가질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 생각했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과목폐지로 인한 교과군의 축소가 아니라 통합하는 것이며, 과목의 수업시수 또한 변함이 없었다. 그 다음 학기에 배우는 일부 과목을 자신이 원하는 학기에 몰아 수업하는 집중이수제도 마찬가지로, 그 학기에 배우지 못한 과목은 수업 시수를 채우기 위해 다음 학기에 필수로 학습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다. 어느 학기에 음악교과 대신 미술교과를 집중적으로 선택·편성하여 이수를 했다면, 다음 학기에는 미술수업 대신 음악수업을 가르쳐야 하므로 결국 전체 이수과목의 수는 똑같다는 것이다. 학습 지속성이 끊긴다는 면에서 집중이수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일선 학교가 학교별 증감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20%의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국 영 수 중심의 편성을 하게 됨으로, 입시교육이 더욱 심화되어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훨씬 증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2015 교육과정은, 2009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여 기존의 지식암기 형식의 수업에서 탈피해 학생들이 인문학적인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넉넉히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015년 9월에 교육과정을 확정한 후 2017년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에 전국 고교의 수업방식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모두가 단편지식보다 핵심개념과 원리를 제시하고, 적정화 된 학습량에 따라 실험·실습 활동, 토의·토론수업 등 자신의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과정 중심의 평가'가 확대 되도록 구성하였다.

B.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흐름

1955년 교육과정제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의 흐름은, 그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 미술교육은 특히 대물림의 양상을 띠는 전수형태가 주를 이어왔는데, 미술이라는 개념보다는 비법전수나 생활수단이었다. 서양의 공개경쟁 선발과 도제교육 등에 비하면 지극히 기계적 이였으며 가문끼리 마을을 형성해 살기도하고 같은 자손들에게는 한꺼번에 여러 명이 배우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당형식의 제도적 역할도 등장하였다. 인구의 증가와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서당은 점차 발전되었으며, 여기서는 짐승의 털로 만든 붓인'모필'에 의한 습자와 간단한 그림교육이 함께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도제교육의 한 방편으로 화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사숙에 들어가 수업을 받는 정도였다.[1] 국가의 화가 양성기관으로는 신라 말기에는 회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했던 것으로 믿어지는 채전(彩典) 이란 곳도 있었고 조선에는 도화원[2] 이라는 것을 두어 도화서에서 일하는 20명의 화원들이 궁정의 귀족이나 왕가의 초상,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그림 등을 제작하게 하는 일을 했다. 조선시대의 미술교육 기관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첫째로 국가의 기관으로서 그림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도화원, 둘째로 사학, 향교, 성균관, 서당 등의 일반적인 교육제도, 셋째로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는 사대부들이나 일반 화가의 미술교육 활동이다. 그러다가 정부는 1894 갑오경장을 계기로 국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 새로운 관제를 발포하면서, 모든 학교제도를 재편성 하였다. 이어서 1895년 고종 32년 7월 19일 척령 145호로 공포된 소학교령에 도화(圖畵)와 습자(習字) 과목이 공고되면서 우리나라의 미술교육 형태가 새롭게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미술이 도화라는 교과 명으로 교과과정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학제의 대부분이 서구의 법령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는데, 당시의 국정에도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많았고, 이를 실천할 교사 또한 부족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새로운 교육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미술교육이 함께 도입되었다는 점과 전혀 새로운 학교교육 체계가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일 보호조약 이후의 학교교육은 사실상 일제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고, 1906년에는 우리나라에 통감부가 설치됨으로써 모든 주권이 통감부의 지휘권에 들어가게 되었다.[3]

1910년 이후에는'조선 교육령'이 반포되고, 미술교육은 수공, 도화라는 이름을

1) 김정, 1989,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p.61
2) 도화원(圖畵院: 오늘날 보통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 기관이 아닌, 잡학으로 분류되어 국가의 필요에 의한 특정 기능만을 가르치던 국가기관)
3) 정지운, 2003,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현황 및 대안 연구, p.2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닌 채 획일적으로 계속 되었는데, 차별화되고 개별적인 특성보다는 오로지 기능교육만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습자 교육의 부수적 교육으로서 이전에 실시되었던 도화 교육과는 다르게 발전된 모습 이었지만, 이와 관련한 기능적인 수업은 도화교육을 경시한 채, 직업 훈련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수공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1945년 9월 17일 일반명령 제4호로써 1946년 2월에 모든 공립 초등학교가 개교 했으며, 일본어 대신 한국어로 고치면서 군정시대의 수업시간은 조선 총독부의 틀을 그대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1948년 8.15 대한민국의 출범이후 1949년에는 교육법의 통과로 1950년 6월 1일에 의무교육이 처음으로 시행 되었지만, 1950년 6.25 동란으로 교육환경은 크나큰 타격과 혼란이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교실과 교과서 없는 교육이 전시체제에 따른 교육으로 곧바로 이어져 한동안 지속 되었으며 이전과는 달리 1954년 4월 20일에 문교부령 35호로 초·중·고등학교 사범학교의 교육과정 시간배당이 반포 되었다. 이는 해방이후 첫 재정으로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의 본이 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예술교육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개인적 관계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어떠한 흐름을 이어주는 특성으로 발전해 왔으며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에서 직접 부르며 가르쳐주는 육성 교습이었다. 그러다가 갑오경장 이후에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많은 부분의 교습형태가 서양식으로 전환되어 최근까지 이르고 있으며 일본의 억압으로 일제화 된 교습 형태가 마치 우리나라의 예술 정신인 것처럼 한국의 예술 교육을 지배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미술교육이 현대적 의미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인데, 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 50년대 후반에 문교부는 미국의 피바디 교육사절단[4]을 초치하여, 사범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였다.[5] 피바디 사절단은 전국에 있는 사범학교 미술교사들에게 새로운 미술 교육에 대한 지도방법과 동향, 내용 등을 워크샵을 통해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미술 교원 재교육은 미술 교육의 목표와 이념, 내용, 평가, 방법, 환경 등을

4) 1954년 8월 피바디 대학교수 13명이 내한하여 약 9개월간 머물면서 문교행정 전반에 대해 조언하고 편찬 및 교육과정 개편을 지도, 이때부터 피바디 사절단 이라는 명칭이 나옴
5) 최은주, 2008, 중학교 미술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 p.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새로 개선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6] 그 당시 헌신적이고 자질이 높은 몇 명의 사범학교 미술교사들은 성공적으로 과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중진 교사들에게 선도적인 지도를 받았던 학생들이 교사로서 자리 잡기 시작하던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부터는 미술교육이 서서히 활기를 찾게 되었고, 60년대에는 현장에 대한 연구가 신중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함으로써 다른 교과와 더불어 '하나의 교과'로서 착실한 발전을 시작하였지만, 미술교육에 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학문적인 체계가 없이 일선 교사의 개별적인 구상과 자작이론에 의해 간헐적, 산발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내용, 목표, 방법 등의 체계화와 심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60년대에 사범학교가 교육대학으로 승격되고, 70년대에 들어서는 여러 대학과 미술대학에 미술교육과가 많이 개설됨으로써 초·중등의 교원 자질이 보다 크게 향상되는 추세에 있고,[7] 대학을 중심으로 하며 미술교육 및 미술론에 대한 학문의 심화 및 체계화의 필요성이 재고되고 있으며 70년대 초반부터 교육대학원에 미술 교육과 및 전공이 개설되어 미미하나마 미술교육의 학구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1972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립과 79년부터 미술교육 연구실이 운영되면서 관계 대학, 교육부, 현장 등과 긴밀한 상관을 가지고 미술의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교과서, 지도서)의 개발, 지도방법 및 평가의 개선 등의 중요한 문제에 인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미술과 교육은 정초기를 지나 발전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미술 교육은 교원, 학부모, 학자, 관리, 연구원, 사회 유관 기관 등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심도 있고 합리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췄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대부분이 표현기능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 발간된 책이나 미술교육자료들은 이를 토대로 이해 중심 미술교육을 거론하는 시점이다. 더군다나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은 시기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입장에서의 미술교육 관련저서의 출간, 미술교육 전문 잡지의 발간, 미술 개인 방문 학습지의 탄생과

6) 박솔란, 2010, 중등 미술교육의 현황 및 전통회화에 관한 수업방법 연구, p.10
7) "정지운, 전개서, p.2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보급, 미술교육 관련 논의의 급격한 증대, 학회활동의 활성화, 미술교육 관련 대학원생의 증가, 미술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의 증가, 미술교육 전공 박사학위 과정의 개설, 아동미술 관련학과의 증설 등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미술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볼 때, 목적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면 된다. 그에 따라 미술교육의 목표와 내용, 평가, 방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기준으로 미술교육은 그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미술가 또는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표현 기능을 향상시키는 **표현기능 중심의 미술교육**, 둘째로, 미술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인 창의성을 기르고자 하는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 셋째로, 미적 경험과 미적 자각, 미적 반응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과 미술을 함께 이해시키는 것이며 이는 미술의 본질적인 면에 가치를 두는 **이해 중심의 미술교육**이다.

위의 세 가지 흐름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 미술교육은 1970년대 이전, 1970년~1990년 초반, 1990년대 중반에 거쳐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 →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 이해 중심 미술교육 차례로 교육이론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이것은 한국의 모든 미술교육의 대체적인 흐름이지, 한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다. 목적에 따라 크게 나눈 세 가지 미술교육의 특징은 다음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8) "위의 책, pp.23-2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 목적에 따른 세 가지 기능 중심의 미술교육

표현기능 중심의 미술교육	교육목표	사회에 필요한 디자이너, 건축가, 공예가 등의 양산
	배경	바우하우스 미술교육 운동으로 인해 교육내용의 체계화와 교육방법의 과학화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에서 필요한 디자이너, 공예가, 건축가 등의 육성을 목표로 표현능력 향상에 중점
	특징	▶ 사회에서 필요한 전문가 (예술가, 산업디자이너) 등을 육성하기 위한 미술교육 실시 ▶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표현기능을 향상하는 것에 중점을 둠 ▶ 미술에 관한 기본요소 및 체계적인 구조에 의한 지도를 강조
	한계	▶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한 미술을 배우게 됨으로써, 모두가 반복된 훈련만을 하게 됨 ▶ 학습자의 특징이나 입장,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음 ▶ 학생들의 예술 작품을 제품생산의 도구적인 관점으로 봄 ▶ 학교생활을 미래 대비를 위한 준비과정이라 보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희생과 훈련만을 강조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	교육목표	교육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인간정신인 창의성을 미술을 통해 육성하고자 함
	배경	심리학의 발달, 어린이 중심 교육사조, 표현주의 미술의 등장
	특징	▶ 어른들의 간섭을 배제하고 아이들의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보장 ▶ 미술을 인간의 조화로운 성장 및 창의적인 잠재력을 개발시켜주는 도구로 생각함 (본질적인 역할 < 미술을 통해 길러지는 교육의 성과) ▶ 활동과정에서의 창의적인 자아표현을 중시
	한계	▶ 일반적인 교육의 목표를 더 중시함 ▶ 교사의 역할에 따라 교육성과에 차이가 큼. ▶ 본질 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미술의 본질과, 맥락중심의 관점의사회적 요구 모두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해 중심의 미술교육	교육 목표	미술교육을 통해 이해를 증진시켜 교육적 환경에서 획득한 개념과 지식, 기술 등을 환경과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배경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직시하고 미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탐색 과정에서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과 흐름을 같이 하여 등장
	특징	▶ 미술교과의 독자성을 강조 ▶ 미술교육에서 이해와 감상활동을 중요시 함 ▶ 미술교육에서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을 중시 ▶ 미술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
	한계	▶ 미술에 관한 지식전달로 치우침 ▶ 구체적 교육과정과 지도법 제시가 미흡 ▶ 많은 학습량을 교사의 능력에 무한히 요구

위의 표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첫 번째로,'표현 중심의 미술교육'에서는 많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미술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점과 시지각과 손의 협동력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 했다는 점, 다양한 미술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점, 사회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만 미술교육이 사회에 공헌 했다는 점 들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 이는 미술을'표현'과 연관 지을 때에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현재까지 미술교육의 저변에 남아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은 인간의 정신발달은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발달한다는 믿음에 따라, 미술을 통하여 어린이의 창의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로써 어린이의 발달단계와 흥미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주제와 재료로 동기를 부여 하는 것이 교수-학습에서 가장 중요하며 미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통해 창의적인 잠재력을 길러주려 노력한 미술교육의 사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이해 중심의 미술교육'은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미술교육 운동이다. 학교 교과로서 미술 교과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계기가 되었으며 미술의 학문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미술을 독립된 교과로서 그 위치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새롭고 다양한 시각문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미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강조했다는 점이 현 미술교육 현장에도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9)]

1.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특성

우리나라의 미술교육 특성은 전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견해인 **'정서 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 이다. 아름다운 대상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여 미적 감성을 풍부하게 하며, 정서를 점점 순화된 상태로 전환시키는 관점이다. 이는 시각적 경험을 통해 미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미적 정서를 기르며 나아가 조화롭고 원만한 인간 형성을 모사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주로 60년대부터 제의된 주장으로 **'창조성을 기르기 위한 미술교육'**이다. 아이들에게 창조성을 띠는 다양하고 독특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관점이다. 창의성은 잠재적인 감성의 표출로써 나타나는 것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개인의 독창성과 풍부한 상상력을 형태화 시키는 표현과 결합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잠재적인 형태에 질서를 부여하고 구체화하여 나타내 보이는 것이 곧 창조인 것이다. 창조는 개인의 감정이나 사고가 중요하게 작용하여 개성의 발전과도 관련지을 수 있으며, 특히 미술과 교육은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표현 즉 창의적 사고와 창조적인 성격이 바탕이 되어야한다. 미술은 수동적 수용활동이 아니며 아이가 자신을 표현하고자하는 적극적인 표현활동 그 자체가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는 다양한 형태의 미술 활동을 접하게 함으로써 **'표현능력을 기르기 위한 미술교육'**이다. 도구나 재료 등을 능숙하게 다루어 자신의 느낌과 생각,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관점이다. 이러한 세 관점들이 바로 미술교육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10)]

9) "위의 책, pp.23-2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라면 대부분이 초·중등과정을 합쳐 최소 12년 동안 미술교육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나마 미술을 전공하거나 좋아하는 사람 몇몇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뿐,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미술에 대한 소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2-3시간의 미술수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은 그저 재능과 소질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분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선 연구를 통하여 미술과 교육과정이 1950년대 이후부터 최근 2015년까지 총 10번의 개정을 거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형적인 표현과 기능은 물론이고 이해와 감상·표현 영역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교육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많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세대와 현재 우리 세대의 미술교육을 각각 비교해 보면, 수많은 교육과정들이 실제 우리 학교의 교육현장에서는 얼마나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가? 아마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서 미술수업이 시작되면 교사는 주제별로 나눠진 교과서중 한 챕터를 골라 학생들에게 주요 설명을 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 교과서의 예시 작품을 토대로 그 그림을 따라 그리기에 급급하다.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보다 높은 점수를 위한 기능적인 면에 더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 학기에 이와 같은 미술 수업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결국 학생들이 미술 수업을 통해 얻는 것은, 숙련된 기능을 재현하는 데에 필요한 소질이 있느냐 없느냐 단 두 가지의 결론뿐인 것이다. 수업을 통해 자신이 미술에 대한 소질이 없다고 느낀 학생들은 곧바로 흥미와 관심을 잃고 미술교과는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며 자기표현의 욕구마저 꺾여버리고 만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로, 초기 미술교육 방식과 평가방식의 오류의 결과를 들 수 있고, 둘째로는 미술교육의 평가방식의

10) 차지언, 우리나라와 프랑스 미술교육의 비교연구 , 2005, p.2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오류에 따른 기성인들과 교육정책 입안자의 미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날이 갈수록 미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고, 현직 교사들 또한 미술 교과의 특성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적어도 2-3시간의 수업시간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입시제도에 밀려 다른 교과목의 보충으로 그 자리마저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6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던 중에 중학교 미술과 수업시수가 확연히 줄었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오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미술과 수업시수의 축소는 물론이고 2,3학년은 아예 선택교과로 정해져 학생의 선택이 아닌 학교 결정에 의해 미술수업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고등학교 에서는 미술교사 한사람이 담당해야 할 학생 수는 한 학급당 20~30명으로 보통 300명 정도라고 한다. 미술수업은 다른 교과처럼 자리에 앉아서 듣는 수업과는 달리 다양한 체험과 감상, 표현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특유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수업을 위한 환경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가능케 하는 미술수업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기자재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감상 활동을 위해 미술관 교육을 실행하기에는 주어진 수업시간과 인솔해야 할 많은 학생들로 인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방침을 살펴보면 학생의 적성, 능력, 필요, 흥미에 대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명목들로 인하여 아무리 열정이 넘치는 교사일지라도, 미술교육의 기능에 맞게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등을 길러주는 지도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후에 2009년 개정 교육과정과 최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여 현 창조경제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의 육성을 강조 하였음에도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국 문화예술정책포럼 미술교육'대표자 모임의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문을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 [문화예술정책포럼 미술교육 대표자모임 지지선언문][11]

우리는 시각예술 관련 전공자이자 교육자로서 한국사회의 미술 전문 교육에 중추적 역할과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시기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에 대한 과소평가와 몰이해로 예술교육에 대한 보편성은 축소되고 자발적인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은 위축되었으며 산업에서의 창작자에 대한 부가가치도 저평가되어 왔다.

입시 효율성만을 강조한 사회적 분위기는 중등 공교육 과정에서 예술을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배제시켜 버렸고, 전근대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으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기에 이른 전 정권은 문화 예술 분야의 자유로운 의지에 재갈을 물려 위축시켰다. 심지어 통치적 담론으로 내세운 문화융성의 기치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문화예술 자체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조차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온 국민은 우리사회에서의 문화산업의 이익이 담당 예술인과 실무자에게 돌아가 창조적으로 순환되지 않고 소수의 기획자와 권력자에 의해 가로채어지고 있다는 불합리한 사실에 분노하였다.

문화 예술 교육이 현대 인류사회의 교육적 가치 중 인문학, 체육활동과 함께 가장 필수적인 지위에 있다는 사실은 유럽 선진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문화예술 교육이 사회의 보편적인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는 세상을 꿈꾼다. 학교현장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이 되고 소수의 부유층이나 엘리트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향유하는 전사회적인 소비재이자 생산재가 되길 희망한다. 그 길만이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지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후세대를 교육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꿈꾸는 이러한 희망의 과정에서 정권의 이해나 특정인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 미래세대의 풍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데 뜻을 모은다. 그가 기득권을 버리고 인권변호사로서 살아온 소외된 이들에 대한 헌신과 공직생활에서 보여준 원칙주의와 정당의 대표로서 보여준 사익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각으로 미루어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의견에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협치 해 갈 수 있는

11) 김명주 기자. 2017."문화예술정책포럼 미술교육 대표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지지선언."아시아 뉴스통신.2017년 05월 08일 수정,11월10일접속,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164618&thread=07r0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통령이 되어 줄 지도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절박한 충정이며, 온 국민이 누려야 하는 문화 예술의 향유에 대한 권리이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사회의 문화적 보편성을 조성해 가기위한 제안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지지는 선거 국면에서의 일회성 목소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안자인 주권자 국민으로서의 명령이며, 대화 파트너로서 계속해 펼쳐 갈 주장이다. 우리는 사회 각 부문에서 문화예술 교육주체로서의 사명감으로 우리 사회가 문화적 정상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라답게' 이루어져 가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려되는 문제는, 작가지망을 위해 미술전공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에서는 몇 몇의 학교에서 특기적성 이라는 명목 하에 수업을 하고 있다지만 그 마저 현 입시 제도를 위한 것이며 기술 중심의 미술교육일 뿐, 훌륭한 예술가를 기르기 위한 미술교육은 물론이고 체계적이고 수준 있는 미술교육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해 내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제2절. 프랑스의 미술교육

A. 프랑스 미술교육의 흐름

프랑스 미술교육의 흐름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는'**산업사회의 미술교육**'이다. 선사시대부터 고대 문명사회를 지나 중세의 봉건사회에 이르기까지 미술교육은 도제에 의한 방법과 형식으로 전수되어져 왔다.[12] 도공, 화공, 석공, 적조공 등의 기술적인 직업은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문적인 기능과 비법을 전수받는 대물림 식으로 그저 모방과 훈련의 반복에 의해 이어져 내려왔다. 13)

중세 그리스 시대에는 전문적 기술을 가진 예술가를 그다지 존경하지 않는 동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영향 탓에 미술교육은 노동의 일부로 여겨졌으나 여러 장인들의 영향으로 새로운 길드가 형성되면서 예술교육이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14) 그 때부터 미술교육은 길드를 통한 엄격한 도제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르네상스의 시작과 동시에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교육 실제 및 교육 사상의 많은 부분에 큰 변화가 온다. 근본적으로 예술가를 천재로 여기는 새로운 생각이 동양하였으며, 예술가의 지위와 어우러진 미술교육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르네상스의 미술교육은 예술가의 사고와 이어진 교육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같은 교육방법 역시 예술원의 형태를 나타내게 되었다. 예술원에서는 미술교육에 대해 학문의 보편적인 지식 추구를 중심으로 미술의 이론, 실기, 철학 등의 지식이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점차 발전되었다. 교회의 분리와 전쟁, 그리고 사회의 대변동으로 인해 르네상스 운동이 막을 내리게 되고, 대신 정치적 절대주의와 과학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15)

1648년 설립된 프랑스 예술원은 회화와 조각을 가르쳤으며 아카데미는 회원들에게 미술법칙을 강의하고 학생들에게 생물 드로잉 코스를 의무적으로 교육하였다.16) 아카데미 과정은 상급과 하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급학생들은 교수들의 드로잉 작품을 모사했고, 상급학생들은 석고상 드로잉과 모델 드로잉의 순서로 이어졌다.17) 아카데미 강의는 원근법과 기하학 그리고 방법의 규칙을 형식화하는 회화의 분석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고 학생들에게 실기와 이론이 고루 이루어진 완전한 교육체계 속에 결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훗날 모든 미술학교의 모범이 되었으며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다

12) 박미정, 2011, 한국과 프랑스의 중학교 미술교육 비교연구, p.18
13) “위의 책, p.18.”
14) 박지혜, 2007, 한국 중학교 미술교육과 외국 중학교 미술교육의 비교연구,p.21
15) 한기영, 2016, 한국과 프랑스의 중학교 미술교육과정 비교분석 연구, p.32
16) ″ 박미정, 전개서, p.19 “

17) 송선영, 2013, 한국과 프랑스 미술교육 비교연구, p.2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9세기의 시작과 함께 세워진 많은 공장들이 공예작업장을 대신하게 되었는데, 과학의 발달로 인한 산업혁명으로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격조 높았던 예술품 대신 대량생산된 값싼 제품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그때부터 예술품에 대한 예술적 특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자 프랑스는 지역산업체의 필요에 의한 지방 예술원을 설립하여 산업미술교육문제에 접근하였다.

둘째로는**'기하학적 방법'과 '감수성의 발달'사이의 토론으로서의 미술교육'**이다. 1878년 프랑스의 모든 초·중등교육에서 미술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자리 잡게 되고, 학교에서의 일반교육과 더불어 미술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당시 영국과 독일에서는 사고 풍조의 영향을 받아 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것으로 데생교육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 방법은 '기하학적 방법'을 근거로 두어 모든 사물에서 기하학적 요소를 찾아 상상하고 측정하는 것에서 먼, 기하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손 기술의 능력과 함께 과학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사고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두 가지의 대립된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유젠느 기욤(Eugene Guillaume)의 방법이라 불리는 이론으로, 기하학의 기초를 이루기 위한 학문으로 데생교육을 보았으며, 데생교육도 알파벳과 문법처럼 학습할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것에서부터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점차 나아가야하는 체계화를 부각하였다. 그리하여'예술을 위한 예술'에 반대하고 이성의 측면과 유용성과 도덕성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학교교육에 미술교육을 타협시키려 하였다. 기욤의 이러한 관점은 정신적 실증주의자 펠릭스 라붸송 (Felix Ravaisson, 1813-1900)이 주장한 이론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었다. 라벵송은 과학적인 지식과 예술에서의 지식적 특질은 함께 체계화 될 수 없으며, 이성적인 분석능력 보다 직관과 감성의 능력으로 인접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론이다. 데생교육은 시각적, 기하학적 법칙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하지만 이는 목적에 달하기 위한'예술에서의 접근'이라는 수단일 뿐이며 미적정서와 취향의 교육이야 말로 진정한 예술교육이라고 역설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셋째로는**'자연관찰로서의 미술교육'**이다. 1909년의 교육 프로그램은 그 동안의 교육학 사조의 영향으로 획기적인 개정이 이루어진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1909년 교육 프로그램 개정내용

▶ 학생들 개개인의 고유한 성향의 존중과 감정 해석의 자유를 독려하도록 돕는 교사와 학생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 미술은 그 자체 또는 단순한 여가로서의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문화의 도구로 개인발달의 교육을 강조한다. ▶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연을 교육의 기저로 하여 학습영역을 확대하고 자유화, 조고 그리기, 기억하여 그리기, 지리와 관련된 그리기, 삽화, 만들기, 등 다양한 작업 활동의 소개.

위의 시기에는'기하학적 방법'보다, 라붸송의 이론인 감수성 발달의 중요성을 더 상위에 두고 있으며 예술·과학으로서의 미술교육보다는 미술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직관력, 사고력과 상상력 등의 조화로운 형성과 더불어 상상하고 지각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 언어로 여겼다. 자연을 직접 탐구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관찰과 색의 사용은 지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미술교육에서 점점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자연관찰'이라는 방법은, 루소의 교육이 미술교육에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진정한 교사는'자연'뿐이며, 모델은 실재하는 사물뿐이라는 관점이다. 실재하는 객체나 사물의 정확한 관찰 및 재현이 주된 교육 내용이자 관찰 이라는 지적 훈련을 통하여 아이들이 학문적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루소의 교육방법은 아이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조형 작품을 이해·연구하는 교육적 사고의 근저가 되었으나 당시의 미술교육은 예술현상의 모더니즘 경향을 등한시 한 채 다소 독립적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넷째로는**'교육심리학적 요소를 강조한 미술교육'**이다. 20C부터 루소는 아이들의 심리 연구에 대한 길을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하였으며 어린이만의 특유한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아주 어린 아이들의 작품들도 정신분학적 측면과 인지 심리발달 이론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어린이의 묘사능력을 정서적, 인지적, 시각적, 신체적인 발달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발달단계 따라 단계적인 테스트를 하기도 했고 심리요법 또는 정신과 관련하여 아이들의 미술을 보기도 했다. 교사들은 어린이의 상상화, 자유화를 통하여 심리와 정서발달 상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미술 표현을 통한 억압된 상태의 감정표출 및 치료를 기대하게 되었다. 이 교육을 통해 예술을 위한 교육은 이전보다 교육의 역할을 더 강조하게 되었으며 미술교육의 심리학 측면의 강조는 피아제(Jean Piaget) 의 발생학적 인식론 연구의 영향으로, 데생을 어린이의 인지 발달단계에 맞추어 발전하는 과정으로 보게 되었으나, 프랑스는 피아제의 인식론에 대해 지나친 단순화, 도식화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다섯째로는**'실용주의 관점의 미술교육'**이다. 20세기의 미술교육 개념을 구성하는 여러 토론중 하나는, 미술교육을 통해 실용성을 찾는 것이었다. 허버트 스펜서(Hrebert Spencer)[18]는 콩트(Cornte Auguste)에 이어'가장 유용한 지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최상의 위치에는 과학을, 하위의 위치로는 예술을 꼽았다. 스펜서의 저서가 교육계에 보급되면서 그 영향력으로 예술교육은 다른 교과지식에 비해 더욱 소외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다른 지식과의 관계 속에 예술교육의 실용적인 측면을 찾게 된다.[19]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던 기욤의 미술교육론과 함께 간접적인 실용성으로서 미술을 통한 과학적 의식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스펜서의 이론으로 예술표현에 많은 실용적인 가치들이 부각되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술과 교과교육의 개념을 형성하는 사고 체계와 결코 멀지 않다고 볼 수 있다.[20]

---

18) 영국의 철학자. 저서 《종합철학체계》로 유명한데, 36년간에 걸쳐 쓴 대작이었다. 성운(星雲)의 생성에서부터 인간사회의 도덕원리 전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진화(evolution)의 원리에 따라 조직적으로 서술하였다. 또 철학과 과학과 종교를 융합하려고 하였다.

19) 이은적, "미술교육 내용 구성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전환 -프랑스 의무교육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속의 미술교육 내용의 구성에 관한 인식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자격연수, 학술저널』, (2001), p.9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마지막 여섯째로는**'창의성의 미술교육'**이다.'창의성'이라는 말은 19세기 말부터 미술교육에 등장하였다.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통해 창의성을 계발하고 정서를 순화하여 조화로운 인격 함양에 기여하려는 미술교육으로 20세기 초 프란츠 치젝(Franz Cizek)[21]이 자주 사용하였는데, 로웬펠드[22]에 이르러 미술교육의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 프랑스는 1968년 개혁을 전후하여 어린이의 창의적인 본성을 찬미하는 토론이 다양화되었고, 창의적 활동을 고취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가 잇따르면서 학교라는 체제가 어린이의 창의성을 고취시키기보다 오히려 억압하고 고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게 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세계경쟁'에 직면하여, 국가는 그에 맞는 새로운 체계의 개발을 위한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 또한 창의력을 지닌 인간형성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술교육은 사전학습을 선행으로 해야 하는 다른 일반교과들과는 달리 일찍이 창조의 과정으로 넘어가 창의성의 효율적인 신장을 돕는 교과로 여겨지게 된다. 1960년대 후반 프랑스 미술교육 개혁의 중심이론은 창의력의 신장이었고, 이의 강조가 표현기술이나 미적인 규범에 구속됨 없이 자발적이고 자연적인 표현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3]

오늘날 프랑스가 문화 예술을 대표하는 선진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일찍이 문화유산 및 예술품의 가치를 중요시하여 이를 보존하는데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에서도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이 형성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과거의 프랑스에서는 미술 분야는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 수집되거나 보관, 후원 되었으며 미술교육의 목적 또한 그러한 소수 엘리트들의 소양을 기르는데 활용되었을 뿐이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어린이의 예술적 감수성을 개발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는 일들은 극히 드물었고 학교의 교육프로그램과도 무관한 것이었다.

---

20) "위의 책, p.97"
21) 아동의 창조성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주의 미술교육의 선각자이며, 로웬펠드의 스승으로 후에 세계의 미술교육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
22) 빅터 로웬펠드(Viktor Lowenfeld, 1903~1960) :1903년 오스트리아의 린츠(Lints)에서 태어나 전 세계 미술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술교육 사상가
23) "박미정, 전개서,pp.22-2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중·고등학교에는 미술 및 음악수업이 있었지만 수학이나 과학 등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이러한 과목들을 겸해서 가르치는 식의 피상적이고 비전문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예술수업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전미술이나 고전음악을 다루는 것이었으므로 동시대의 예술에 대한 교육과 관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1960년대 이후 프랑스 미술교육의 시대별 특징은 다음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6> 60년대 이후 프랑스 미술교육의 시대별 특징

1968년 교육의 특징	▶ 특징 - 학교교육 안에서의 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그에 대한 논의가 시작 - '새로운 학교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열린 학회에서 교사 및 학자들은 학교 내 예술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수립 ① 예술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강조되어야 한다. ② 동시대의 예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③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중시해야 한다. ④ 예술 교육은 다른 교과의 교육들과의 상호교류 및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교육자들과 관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⑤ 학교 외부에서 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문화 활동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 변화 : 위의 원칙들을 교육현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후에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1970년 교육의 특징	▶ 특징 - 학교 내에서의 변화에 가속도 → '10% 열린 교실' 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외부의 문화예술 활동을 시작 ▶ 변화 : 학교 수업시간의 10%를 학교 외부 활동에 할애함으로써 전통적 교과목을 보완하게 되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983년 교육의 특징	▶ 특징 -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약체결 → 학교에서 교사와 함께 문화 예술인(예술작가, 큐레이터, 심리학자 등)들이 수행하는 예술 활동의 정당성을 최초로 공식인정 ▶ 변화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수업과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8년 교육의 특징	▶ 특징 - 고등교과에 선택과목으로 여러 예술과목들을 신설하는 제도를 시행 ▶ 변화 : 제도를 꾸준히 시행한 결과 1992년 교육부와 문화부가 도합 되어 이전보다 실질적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을 탐색할 수 있게 됨

이후 2000년에 문화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써 2001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시작되었으며,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육이 지금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B. 프랑스 미술교육의 특성과 현황

1. 프랑스의 교육체계

프랑스의 일반적인 교육은 초등 교육(enseignement élémentaire)과 중등교육(enseignement secondaire), 고등교육(enseignement supérieur)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초등 교육은 다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학령전 교육 (enseignement pré-élémentaire)과 초등학교 교육 두 가지로 구분되고, 중등 교육은 중학교에서의 전기 중등교육과 고등학교에서의 후기 중등교육이 있다.[24] 고등학교 교육은 일반 대학교 (universit) 에서의 교육, 그랑제꼴 (grandes coles)에서의 고

24) "송선영, 전개서,p.3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급 전문 인력 양성교육, 기술 전문해학 (Institut universitaire technologique : IUT)등에서의 전문 기술 교육으로 세 가지의 교육으로 나뉜다. 프랑스의 초·중등학교는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3세 이상 (경우에 따라 2세도 입학 허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3년)과 초등학교(5년제), 중학교(4년제), 고등학교(3년제)로 구분할 수 있다. [25]

<표 7> 프랑스의 일반적인 교육제도[26]

구분		학교	교육기간	과정		비교(한국)
고등교육	Université 대학교	2-4년 이상	3e cycle	Doctorat	박사 과정	박사
		1-2년		D.E.A		수료
		1-2년	2e cycle	Maîtrise 석사과정		석사
				Licence 학사과정		학사
		3년 (만18세 이후)	1e cycle	2e année : DEUG		교양 학부
				1er année : DEUG		
중등교육	Lycée 고등학교	3년 (만15-17세)	Terminal (최종학년) 2e (2학년) 1er (1학년)			고3 고2 고1
	Collége 중학교	4년 (만11-14세)	3e (3학년) 4e (4학년) 5e (5학년) 6e (6학년)			중4 중3 중2 중1
초등교육	École Primaire 초등학교	5년 (만6-10세)	CM 2 (중급과정2) CM 1 (중급과정1) CE 2 (초급과정2) CE 1 (초급과정1) CP (준비과정)			초5 초4 초3 초2 초1
학령전교육	École Maternelle 유치원	3년 (만2,3-5세)	GS (상급반) MS (중급반) PS (하급반)			

25) "위의 책, p.3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7>의 프랑스 학제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와 다른 점에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프랑스의 중등 교육의 학년 나열방식은 6학년에서 부터 가장 아래학년까지 역순으로 배열한다. 이는 1학년부터 최종학년까지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우리나라의 학년 배열과는 다름으로 혼동하기 쉽다. 또한 우리나라는 보통 새 학기가 3월에 시작되지만, 프랑스는 9월에 시작된다. 따라서 표에서 나타는 나이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된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만6세에서부터 16세까지 무상의무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료(프랑스고교 1학년 수료)한 것에 해당된다.[27] 이하 논문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학제에 따라 프랑스 초등학교 5년을 초1-초5까지의 방법으로 쉽게 표기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5년제인 초등학교는 2개의 과정, 즉 기초학습과정 CP, CE1(우리나라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과 심화학습과정 CE2, CM1, CM2(우리나라 초등학교 3,4,5학년에 해당)으로 나누어져 있다.[28] 초등학교 교육 과정은 의무와 무상으로 교육이 시행된다. 한 주당배당 수업시수는 26시간이며 수요일은 휴무로 지정되었고 토요일은 대부분 오전수업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의 교과편성을 살펴보면, 프랑스어(불어), 역사, 산수, 시민교육, 지리, 과학과 기술, 예술 및 체육교육 등이며, 자국어 수업인 불어는 주당 9시간씩 수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부터는 초2(CE1)부터 자국어 시간의 1.5시간 정도를 외국어 교육에 쓰고 있다. 중학교는 총 4년의 교육과정으로'적응과정'의 6학년(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과'중간과정'의 5학년, 4학년(우리나라 중학교 2,3학년),'진로지도 과정'의 3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으로 구분되어진다. 일반적인 기술고등학교나 직업고등학교의 진학으로 이어지는 3학년 진로지도 과정은 학생의 진로선택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시기라 볼 수 있으며, 배당된 수업시수는 선택과 필수를 합쳐 총 26-33시간 이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마치면 중학교 졸업자격 시험인'Brevet'라는 국가고시를 치르게 된다.

---

26) 박미정, 전개서, p.36 에서 이규민, 2000, *"프랑스의 미술교육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中心 으로" 韓國初等 敎育 11.2 : 562 재인용*

27) "송선영, 전개서,p.33."

28) "위의 책, p.3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는 졸업생의 학력수준을 평가하는 고시일 뿐, 고교 진학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실제로 학군별에 따른 학생 본인의 희망과 내신 성적이 Brevet의 성적과 함께 고등학교 입학에 참고 되는 것은 사실이다.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 및 각종 기술·기능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고등 교육과정은 총3년으로, 일반계와 직업계, 기술계 세 분류에서도 2학년(우리나라 고1), 1학년(고2), 최종학년(고3)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계와 기술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계열을 결정하는 바칼로레아 (Baccalauréat:대학입학자격시험)단계와(우리나라의 고1), 준비를 위한단계(우리나라 고2,고3) 바칼로레아(이하 Bac)의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직업계 고등학교는 자격증의 종류나 직업계 Bac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2.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

예술의 나라 프랑스는 국민을 위해 예술의 질을 높이고 예술 활동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노력으로 전략, 체계적인 정책의 대안을 개발하는 나라이다. 프랑스의 미술교육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프랑스의 정책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프랑스한국문화원의 자료에 의거하여 프랑스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문화예술교육제도를 살펴보면 프랑스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문화예술교육은 정규수업과 특별 편성반 수업, 문화예술 프로젝트(PAC), 기타 예술 활동(예술 아틀리에, 레지던시, 영상교육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예술교육은 의무, 직업고등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의 예술교육은 선택임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어딜 가든지 예술작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예술가들 또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예술교육이 이토록 정착된 것은 아니다. 평등교육이 가져온 하향평준화로 인해 프랑스 공교육은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때부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 미술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2000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수백 수천여개의 미술수업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후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이 지금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는데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첫째, 타 교과들과 종합하여 볼 때, 더 이상 예술 교과는 교육체계의 중심이 아닌 보충적 존재로서 기초과목의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는 과목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에 대한 기초 의지로서 접근 기회의 확대를 기반으로 수립 되어야 하며, 예술실기활동을 보편화해야 한다.

셋째, 학교는 일찍부터 예술작품을 접하도록 하는 곳이며, 예술의 민주화를 실행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이다. 가정 및 사회의 여러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지닌 사람들과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여, 학교 안에서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격차나 접근 불평등을 축소시킬 수 있다.

넷째, 예술에 있어서 이성과 감성을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균형을 이루며 고안될 때 어린이는 그에 따른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감수성을 자극하는 것은 다른 양상의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을 통하여 우리는 예술 이외의 다른 과목들까지도 더욱 생기 있고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다.

다섯째, 문화예술 활동은 공동체 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데 보탬이 된다. 연극, 합창, 무용 등의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아이들은 안정된 토대 위에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정체성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교육원칙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문화예술프로그램 수업(Classe a PAC: project artistique et culturel)'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8> 프랑스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수업

주요역할	▶ 문화예술 분야와 다른 지식 분야에 입문하기 위한 다리 구축 ▶ 교육자와 예술행위자(예술직업인, 예술가), 문화전문가 (연구사, 학예사) 등의 인력의 교류 및 결집 ▶ 학생들이 여러 친구들이나 부모님, 전문가 등의 대중 앞에서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술행위를 펼칠 수 있는 기회·장소 마련
수업방식	▶ 학생들은 학교 또는 문화예술기관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등록 ▶ 수업시수나 일시는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 다름 ▶ 수업은 교실 내부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문화유적지, 공연장, 영화관, 문화원 등의 외부에서 자유롭게 진행가능 ▶ 정규교육과정 동안 총4회의 PAC 프로젝트 이수가 의무 (초등과정 동안 2회 의무, 중·고등 과정동안 1회씩 의무) ▶ 정규수업시간으로 편성, 연간 8-20시간의 수업시간동안 교사, 예술인, 문화전문가, 문화매개자 등이 함께 진행
수업내용	▶ 학생들은 특별활동, 예술인·문화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발견, 예술의 개념과 기술의 습득, 예술에 대한 평가와 관점구상, 관람 등의 활동을 함 ▶ 수업내용은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통하여 새로운 것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함 ▶ PAC에서 다루는 분야 (미술, 음악, 사진, 연극, 시, 문학, 무용, 영화, 건축, 문화기술, 문화유산, 디자인 등) 와 더불어 창작글 쓰기, 칼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편집 등의 서적과 관련한 프로젝트도 기획할 수 있음

이는 유치원과정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의 전체 과정에 적용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학교와 문화기관들의 협력 속에서 학생들은 예술가나 문화예술 전문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화중재자 등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수업방식이다.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문화부와 교육부의 협력이라는 큰 범위 아래 각 지방의 다양한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기획되고 진행된다는 점에 있다. 지역 문화기관에 투자하여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는 이 같은 형식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간 또는 기자재들을 전부 학교에서만 준비하는 것에 따르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본래 문화 기관의 조건들을 수용하면서도 교육부의 지도방침과 흐름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C. 프랑스 초등학교의 미술교육

문화예술교육과 미술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면모와 재량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꼭 프랑스 뿐만은 아니지만, 프랑스를 대표하는 루브르 박물관이나 소규모 도시의 미술관에서도 초등학생아이들이 교사의 지도하에 함께 작품 감상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학교수업 이외에도 아이들이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랑스의 모든 초등학교는 수요일을 휴무로 지정하였고, 쉬는 수요일마다 아이들은 미술학교에 가거나 집에서 미술활동을 한다. 아이들이 학교 밖, 예술가의 아틀리에나 박물관에 직접 가서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 수업을 하는 것이다. 최우선적인 목표를 아이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작가와 함께 미술활동을 함으로써 예술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아이들의 학교 밖 미술 활동에 대해 좀 더 알아볼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9> 프랑스의 초등학교의 학교 밖 예술 활동

	집	미술학교	박물관	예술센터
참여 대상		초등학생	초등학생 및 신청인원	0-6세
활동 지도	학부모	선생님, 예술가	큐레이터, 예술가	유아교육 교사, 심리학자
예술 활동 장르	장르의 구분 없음 (ex.그리기, 만들기, 표현…)	장르의 구분 없음 (다양한 미술수업 진행)	장르의 구분 없음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장르의 구분 없음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활동 내용	즉흥적인 주제로 아이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활동	도구나 대상을 관찰·표현하고, 서로의 작품과 그에 대한 생각을 토론하며 자기를 발현하는 활동	작품을 관람하고 작가의 아틀리에에 함께 가서 예술 활동을 하거나, 큐레이터의 작품 설명을 듣고 명화나 작품의 이해를 위해 작품을 재현해보는 활동	아이는 부모와 함께 예술에 대한 시각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 부모는 아이의 상태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상담을 받는 활동
장소	야외 , 아틀리에	공·시립 미술학교	프랑스의 모든 미술관·박물관	지역 문화예술센터
도구	도구나 재료의 제한 없음	도구나 재료의 제한 없음	도구나 재료의 제한 없음	도구나 재료의 제한 없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예술교육은 조형 예술, 음악 교육, 무용, 영화, 연극, 연기, 사진, 건축 등의 과목의 총체이다. 학교가 조형 예술이나 음악에 교육적 수단으로서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 한다고 해도 예술, 표현수단, 기술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예술교육은 아이들에게 행위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고 취미를 배양시키며 문화·예술적인 유물들에 대한접근과 표현 창조능력을 발전시켜 준다. 쉽게 말하자면 형태와 색, 재료 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우주에 대한 미학적인 인식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회화, 데생, 조각, 판화 및 새로운 표현 기술을 통하여 다양한 재료와 오브제에 대한 표현 방법을 탐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보편적으로 이 교육은 어린이들이 스스로의 표현 능력에 대한 인식과 함께 창조하는 능력과 욕구를 길러주어 자신의 첫 예술 문화를 구축하기도 한다. 어린이의 조형적 표현은 재료나 도구의 저항에 접하거나 단일한 규칙으로부터 스스로가 집어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서 시작된다. 교사는 아이들이 제스처(선 긋기, 다양한 조작, 행동에서 글쓰기로의 이행과정)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며 명작들과 친숙하게 만든다. 프랑스 초등학교의 예술교육에 대한 영상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미술수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선생님은 작은 종이를 나누어주고 이를 볼펜을 사용해 빈틈없이 채우도록 지시하였다. 다른 재료가 아닌 볼펜을 사용하도록 한 이유는, 수업의 처음 목적에 맞게 하나의 용도로 쓰이는 도구가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도구의 다양한 쓰임새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마친 후 학생들은 자신의 종이와 친구들의 종이를 살펴보며 서로의 다른 점을 찾아내기도 하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색을 칠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토론 하며 미술수업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것으로 수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는 과정 속에 등장했던 단어들을 사용하여 곧바로 국어수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이처럼 프랑스의 예술교육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업방식으로 교과의 구분과 경계를 허물고 모든 교과의 학습은 미술에서 시작됨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어수업으로 이어진 수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개인에게 주어진 작은 칠판위에 찰흙을 이용하여 단어를 입체적으로 만들어보고 그것을 복사하여 남겨둔다. 글자 하나, 단어하나를 배우더라도 온몸의 감각을 동원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기억을 갖게 하는 것이 프랑스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목표인 것이다.

D. 프랑스 중학교의 미술교육

프랑스 중학교의 예술교육은'음악과 미술교육'과'예술사'에 중점을 두었다. 예술교육의 목적으로는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자신의 역량 개발과 예술 활동의 습득, 다양한 시기·장르별 예술작품의 분석을 통한 새로운 것의 발견, 개인의 표현과 창작에 관한 기호를 점차 형성하여 미술, 음악, 건축, 영상 등의 예술창작을 이해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과정의 필수과목인 조형예술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예술교육을 이어받아 가르친다. 조형예술 교육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조각, 회화, 데생, 건축, 사진 등 논의가 되는 예술 분야 전체를 의미한다. 또한 오늘날 예술을 접하는 태도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 등도 조형예술 활동에 포함되며 이러한 활동 관점은 예술 작품의 다양성과 작품에 대한 접근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학교의 교육에서 조형예술에 대한 교육은 예술적인 창작과 관련한 실습을 기초로 한다. 다시 말해, 단순한 개념들인 빛, 공간, 색, 재료, 인체, 보조 자료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창조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개인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사고와 근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학생의 지각적 작용과 행동양식을 마음껏 발현하도록 한다. 자신만의 개성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개성을 인정하며, 여러 작품들과의 관계 등에 다양한 관점과 깊은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동시대의 사람에 대하여 특히 연대감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책임감과 함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조형예술은 중등 과정의 다른 필수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그 특수성으로 하여금 개인의 능력을 창조·형성하고 미래의 시민으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 조형예술이 학생에게 제안하는 하나의 교육방식으로는, 개인의 독창성을 기반으로 예술교육에 동기부여를 하고 기초가 되는 예술 세계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초등교육에서 습득한 기본학습을 이전보다 명확히 하고, 중등 교육에 필요한 교과목의 방법 등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미 익힌 학습에 대한 지식과 그 활용을 확대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진로 지도의 시기인 중학교 4학년 학생들은 이전까지의 모든 학습을 완결하는 단계로서 고등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교육내용으로는 1, 2학년은 입체표현과 표현방법(명암, 색채)·구성·조형예술·보충학습 등으로 3, 4학년은 조형적 표현, 표현기능 연습, 사물의 관찰, 보충학습(도시와 건축, 작품 제작)등을 제시하고 있다. 조형예술수업은 주당 1~2시간 정도로 실시하며 조형예술 교사의 지도에 따라 특수한 교실에서 실습을 바탕으로 시행된다. 이러한 실습은 자신이 학습한 기술적인 방법과 더불어 사회, 문화적인 사항도 포함하여 예술작품과 자신들의 창작품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제작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학교 교육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진로결정 및 학습완결의 시기인 4학년 교육과정을 제외한 각 학년의 조형예술 교육과정은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침서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중학교 조형예술 교과목 보조지침

1학년 (1er)	**2,3학년** (2e ,Terminal)
1. 실습과 창작	1. 조형적인 창작과 관련된 실습
2. 개념들	2. 개념들
3. 교육환경	3. 중간과정의 조형예술
4. 조형과 해설	4. 차이의 개념
5. 만들기 ① 오브제 만들기 ② 조형과 만들기	5. 표현수단 ① 표현하기 위한 총체적인 방법 ② 2차원에서의 공간과 3차원에서의 공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③ 주어진 공간, 표현된 공간 ④ 공간표현의 다양한 방법 ⑤ 구성과 계획된 구성 ⑥ 다양한 코드와 원근법 ⑦ 3차원 상태의 공간
6. 지식학습 ① 2차원 공간 ② 3차원 공간 ③ 색 ④ 이미지	6. 조형수단의 물성 ① 재료의 물리적 성질 ② 활동과 도구 ③ 색 ④ 비 마감· 비 채색 처리 개념들
7. 소개된 예술 작품들	7. 이미지 ① 이미지 작업 ② 이미지의 위상
8. 평가	8. 평가

중학교 1학년은 과도기적인 시기이며 이제 초등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파악하여 예술교육을 해야 한다. 교사는 교과목이 요구하는 사항을 참고하여 다양한 학생들과 그들의 능력, 동기 등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교육환경을 마련한다. 학생들은 세상에 대한 이해와 만족감을 드러내는 표시로 그림그리기, 소품 제작, 이야기 꾸미기를 통하여 자신의 흥미를 표현한다. 이러한 동기나 목적에 따라 각자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교사는 학생이 표현활동을 하면서 갖게 되는 창의적인 호기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지식을 순차적으로 교육해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답변이나 작품속의 반복적 특징을 미리 예측하여 정형화·형식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사는 작품의 대상과 재현에 대한 차이와 관계, 그 차이가 가지는 표현적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학생 개인의 생각대로 다양한 도구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재료를 활용하여 작품을 구성하거나 제작할 수 있도록 하되 의미와 형태의 관계에 대한 문제, 선택의 문제, 작품의 통일성이나 이질적인 혼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유도한다. 학생들은 작품의 완성과 함께'3차원적 공간의 입체와 오브제 제작', '2차원적 공간의 그림과 그래픽'에 대한 이해 와 용어학습을 하며, 이를 통해 색이나 이미지 등의 다양한 조형 이론에 대해 지식의 폭을 넓혀가고 발전시킨다.

다음으로 중학교 2, 3학년의 조형예술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표현은 넓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해설은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를 한다. 또한 2, 3학년 학생들 에게는 모든 예술작품에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다. 그 차이가 뜻밖의 결과라거나 실패가 드러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주어진 조건이 조형적 수단이나 작업 과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표현과 곧바로 연결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이'차이'에 대한 문제를 비평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활동시간에 학습한 규칙과, 원칙이 있는 조형적 수단 및 작업의 결과를 통한 것이며, 모든 차이가 긍정적, 예술적이며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선택한 방법으로 작품을 만들고 해결해보며 때에 알맞은 방법을 탐색하여 본래의 방법을 능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차이의 개념이 실습 요소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시켜야 한다. 2, 3학년 학생들은 1학년에서 배웠던 표현 및 창작활동과 더불어 조형적인 방법의 물성, 표현 수단, 이미지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추가된다. 이와 같이 교사는 1학년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계되도록 하여 보다 깊이 있는 개념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복잡한 참고사항이나 여러 유형의 질문과 지식 등에 대한 의문점들을 거듭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조형예술에 대한 기능과 표현뿐만이 아니라 실습과 관계된 단어의 의미를 알고 그에 대해 재차 확인하며 지식 또한 함께 넓혀가는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 프랑스 고등학교의 미술교육

프랑스의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예술교육에 대한 내용 구성은 문화교육, 실기교육, 기술과 방법론 교육의 총 세 가지 교육영역으로 구성된다는 공통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각 예술분야의 특징에 따라 교육 영역의 비중이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문화교육은 예술사조와 작품, 예술가의 예술이론, 글, 예술적인 기술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다. 문화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예술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과 지표를 습득하고, 토론을 통한 분석과 종합하는 방법, 논증 태도, 비평의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분야별 예술용어를 더욱 심도 있게 학습하여, 명확한 언어의 구사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3 학생들의 문화교육에서는 미학의 큰 주제에 관련하여 철학교육을 다루는 미와 예술, 취향의 문제에 대한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로 실기교육은 예술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요소로서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이며, 예술분야에 따라 실기 내용이 달라진다. 학생들은 이러한 제작 활동을 통하여 개성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셋째로 문화교육과 실기교육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닌 조직적인 통합과 상호보완적인 역할로 서로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과 방법론 교육이 추가로 구성된다. 기술교육은 도구와 매체의 이용방법과 신체적 행동의 조절 방법에 대한 교육이며, 방법론적 교육이란 문제 제기, 탐색활동, 작업 계획에 대한 균형조절 교육을 의미한다. 기술과 방법론 교육 또한 서로 다른 학습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서 교육의 목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교육의 전체 활동 속에서 이러한 영역이 상황에 따라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암묵적인 내포의 방식으로 교육되는 것이다.

교육과정 예술교육에서도 다음의 두 가지 면목 특히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활용교육을 강조한다. 하나는,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수집과 분류, 검색, 탐색을 위해, 그리고 그 정보를 시각이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 텍스트, 언어, 제스처, 소리와 연결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ICT를 적극 활용하게 한다. 다른 하나는 ICT를 예술교과에서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전통적인 제작방법과 그 흥미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예술 교과별 창조 활동의 새로운 도구로 컴퓨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조형예술교육은 조각, 건축, 회화, 사진, 연극무대, 정원, 등의 예술분야를 모두 포함한다. 이전의 예술형식을 기반으로 20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예술형식에 대한 교육을 더하여 그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이 교육은 조형예술교육 전문교사가 담당하며 미술가와 문화기관과의 협력체제가 필수는 아니지만, 교사의 지도와 책임 하에 교육활동 계획에 맞추어 운영될 수 있다. 조형예술 교육은 예술 문화와 조형 실습으로 형성되어 상호교류 적인 방식으로 학습되고 있으며 직업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선택과목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대학입학시험인 바칼로레아의 문과 분야에 예술과목을 편성함으로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술수업은 주당 3시간, 문과에서는 주당 5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직업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대학입시에 예술과목이 의무로 배정되어 있다.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예술교육은 작품에 관한 이론과 해석·분석, 전시나 공연의 관람, 발표 등 다양한 접근방법과 교육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사와 예술인, 전문가가 팀으로 구성되어 이러한 교육을 책임지고 학교와 동반 관계를 맺은 문화예술기관과 연계 수업을 진행한다. 일반계, 기술계 고등학교의 모든 1학년 학생들이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계열의 진로 지도를 목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적성과 성향 등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언어 또는 예술 및 체육 중 2과목을 필수로 선택하여 주당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있어, 고등학교의 예술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1> 프랑스 고등학교 예술교과목

구분	종류	
1학년 (프랑스1er)	결정교과	조형예술, 예술사, 영화와 오디오비주얼, 음악, 무용, 연극, 서커스예술
	자유선택교과	조형예술, 예술사, 영화와 오디오비주얼, 음악, 무용, 연극
2,3학년 (프랑스2e ,Terminal)	인문 계열 -필수선택교과- 모든 계열 -자유선택교과-	조형예술, 예술사, 영화와 오디오비주얼, 음악, 무용, 연극

고등학교 예술교과목은 공통필수 와 선택으로 구분되고 필수과목은 작품의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이론·비평 수업을 토대로 한 현장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결정교과에서 한 과목, 자유선택에서는 결정교과에서 선택한 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학생들이 등록한 계열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술교육의 경우 인문계열 학생은 예술 교육 중 필수 선택 교과에서 의무 선택해야 하며, 계열의 구분이 없는 모든 학생들은 예술 교육 중 자유선택교과에서 한 과목을 이수해 한다. 인문계열 학생은 필수선택교과와 자유선택교과에서 같은 예술 과목을 선택하거나 서로 다른 예술 과목을 택하여 누적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우리나라와 프랑스 미술교육의 차이점과 특성비교

제1절. 우리나라와 프랑스 미술교육의 차이점 비교

A.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차이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미술교육은 여러 방면에서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교분석과 연구를 통해 두 나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와 프랑스 미술교육을 비교해보면 가장 먼저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의 차이가 떠오르며 이는 두 나라의 미술교육이 차이를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도하다. 프랑스의 미술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는 전인적인 수단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훌륭한 예술작가를 육성하는 것이 자국의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며 이들에게 미술 교육은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다. 그만큼 미술의 효용가치는 사회에서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론 미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미술관련 학계에서 꾸준히 연구하여 발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이 교육받는 실제 현장에서의 미술교육은 그다지 중요한 교과수업이 아니며, 오히려 입시제도와는 거리가 먼 교과목으로 인식되어 미술교육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 이라고 생각하는 실정이다. 교육개정이 새로 거듭될수록 미술수업이 줄어드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이는 실태와 현황들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2>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 비교

	우리나라	프랑스
공통점	- 모든 교육의 기본이며 전인적인 수단이자 다양한 활동과 체험, 감상, 표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교과	
차이점	- 미술 전공자나 타고난 소질이 있는 사람만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교과라고 생각함 -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교과가 아닌, 기능적인 숙련이 필요한 교과로 인식	- 모든 교육의 기본이며 전인적인 수단 - 학부모가 아이들의 예술 활동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부모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지역문화센터를 통해 쉽게 교정 가능함
현황	- 입시제도에 필요 없는 과목으로, 타 교과수업의 부족한 시수를 대체하는 선택교과로 전락	- 어린 나이부터 예술을 접하게 하여 예술적 풍요로움이 정신적 풍요로움으로 이어지도록 함.

B. 미술교육에 대한 환경의 차이

둘째로는 미술교육의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국의 문화유산과 예술품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힘써왔으며 수많은 도시와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성당과 성 등의 건축물, 미술관 등이 있어 유명한 예술작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는 미술교육과 체험 활동 위한 공간마련은 물론, 다양한 도구와 기자재들의 보유 등 미술교육을 위한 조건과 주변 환경이 구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을 비롯한 몇 개의 대도시를 제외 하고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기 힘들어 학생들이 작품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에 그치고 만다. 게다가 대부분이 따로 미술실을 갖추고 있음에도 한정된 재료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자재나 도구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 외의 차이점은 다음 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13> 미술교육에 대한 환경 차이 비교

	우리나라	프랑스
공통점	- 학생들의 미적안목과 창의성, 표현성 등의 예술적 감각을 육성시키기 위한 미적 체험교육의 확대를 강조	
차이 및 현황	- 박물관, 미술관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집	- 수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곳곳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쉽게 유명한 예술작품들을 접할 수 있음
	- 학교에 미술교육을 위한 공간 및 다양한 기자재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 교사가 수업내용을 직접 기획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 가능함
	- 수업 시수와 환경들의 문제를 이유로 대부분의 미술활동과 학습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짐	- 중학교 교육에서는 미술과 음악 수업을 블록타임으로 운영하여 한 학기에 2시간씩 묶어서 수업을 진행함 (2016년 기준)
	- 문화예술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지만 교과 연계 수업이 아닌, 말 그대로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사회문화 예술교육에 가까움	- 수요일을 휴무로 지정하여 학생들을 위해 박물관을 개방,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함 (예술가의 아틀리에, 문화 예술 센터 프로그램 운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미술교육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의 차이

셋째로는 미술교육을 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에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는 미술교육을 위해 문화예술과 관련한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대부분이 학교와 교육부, 그리고 담당교사의 몫이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대안 정책으로 '방과 후 교실'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방과 후 수업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예술교육이나 창작활동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교 밖 교육을 학교 내로 흡수시켜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기획과 취지는 좋았으나, 정작 정규 미술수업에서의 문제점은 개선이 되지 않아 큰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 표를 통해 제도와 정책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표 14> 미술교육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의 차이 비교

	우리나라	프랑스
공통점	- 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을 위한 문화 예술적 기회의 확대를 위한 노력 - 학교 급별, 학년간의 지속성과 연계성, 계열성을 중시함 - 학교,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차이점 및 현황	- 교육개정에 명시된 내용과는 달리, 교과서는 여전히 내용에 있어 학교 급별, 학년간의 연속성과 위계 없이 반복적인 제시	- 문화예술과 관련한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 (ex.문화예술프로젝트(PAC), 예술가 레지던스, 예술아틀리에, 교사동반 문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운영)
	- 미술교육의 대부분이 학교와 담당교사의 몫	- 초·중학교의 예술교육은 의무, 고등학교의 경우는 선택 (직업 고등학교 제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교육청 등에서 지원을 받아 아이들에게 **'방과 후 교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정규미술수업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 문화예술교육은 그에 관련한 경험이나 예술가 또는 작품과의 직접적인만남, 만남을 통해 얻는 지식과 더불어 문화예술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통합하여 지도

D. 미술교과서 및 미술지도서의 차이

넷째로는 미술교과서 및 미술지도서 에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의 지도서는 자유발행제, 우리나라의 지도서는 국정 발행제이며 우리나라의 1종 교과서 제도는 다양한 질과 가치를 추구하는 창의성의 측면에서 볼 때 위험하고 유익하지 못한 제도일 수 있다.

현재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의 해석에만 맞춘 획일적인 것이므로, 기존의 것을 폐지하여 다양한 교사용 지도서를 연구·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며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다양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만한 창의적인 지도서가 출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모든 교과를 특징 없이 발행하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의 출판사가 모든 지도서를 독점적으로 출판하는 백화점식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특정 교과목을 전문화 시킬 수 있도록 출판사의 전문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 학교에서 교사용 지도서는 다양한 학습자료 중 하나일 뿐, 미술 교과서 자체를 학습 자료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인 인식부터가 다르다. 이는 교과서 내용이 학습내용을 모두 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학문적 견문에 따라 교과학습 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의 나위를 보여주는 보다 발전된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5> 미술교과서 및 미술지도서의 차이 비교

	우리나라	프랑스
공통점	- 학생들은 어떠한 수단 없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춘 지능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질문과 동기를 불러일으킴 - 교재는 단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생산물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함 - 미술품을 만들어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학과 미술사, 문화적인 지식을 통하여 미술의 특성에 감응하고 지각함	
차이점 및 현황	- '국정발행제' 로 교과서의 해석에만 맞춘 획일적인 것이며 미술교과서 자체를 학습으로 간주	- '자유발행제' 로 교사용 지도서는 다양한 학습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교사의 학문적 견문에 따라 교과 학습 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의 나위를 보여주는 것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교과의 특징 없이 모든 교과의 지도서를 발행	- 교육과정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교과서를 편찬하라는 편찬 방향만을 공포할 뿐이며, 교과서 집필, 채택, 제공 등에는 여 하지 않음
	-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선정 (무상 공급)	- 학교의 담당 지도교사가 직접 선정 (무상대여)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작품 제시는 있으나, 도구나 재료의 특성의 설명이 부족함	- 재료의 소개 이전에 재료의 특성을 먼저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아이들이 도구 및 재료의 특성을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음
	-단원명의 구체성이 떨어짐으로서 학생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움 (ex. 자연의 아름다움, 여러 가지 색, 찰흙의 세계, 표정과 느낌 등)	- 단원명이 단순하고 뚜렷함으로서 학생들이 쉽게 예측 가능함 (ex. 데생의 구성, 반복되는 그림, 변화시킴, 쓰기와 그리기(이야기 그림) 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프랑스의 교사용 지도서는 다양한 교사용 지도서가 있으며 자유발행제로, 우리나라의 교사용 지도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먼저 행하는 것이다. 이론적인 지식이 적용되지는 못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은 도구라는 수단 없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춘 지능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세상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질문은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예술적인 창작이란 문화적인 지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미국의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29] 교육의 특징과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미술품을 만들어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학과 미술사, 문화적인 지식을 통하여 미술의 특성에 감응하고 지각할 수 있게 되며, 문화와 역사 속에서 미술의 위치를 알고 미술에 대한 판단과 그 판단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30] 즉 미술 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개성 있고 창의적인 태도를 기르고 문화·역사적인 흐름 속에서의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그 가치를 통해 미술품을 보는, 미적인 안목과 능력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조형예술에 대한 견해는 계급화나 축적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관계설과 관련하여 상호 작용적이며, 복잡한 것에서부터 점점 단순화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다. 교재는 단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생산물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셋째, 언어가 방법의 형식적인 모델이 되며 조형 활동 기능의 중요성은 이미지의 변화나 진보성, 다양성 등의 의미를 내포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지각을 적용한다. 컴퓨터와 같은 정보화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정보 산업화에 대한 비판의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은 스스로의 감각을 자극하여 창의적인 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신체적, 물질적인 환경의 변화를 위한 도구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변화 가능한 조형기능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관찰을 통해 그 관찰을 가설화 시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미술작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아이들이 자신의

---

29) **DBAE** :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의 약어로 Art History(미술사), Art Criticism(미술비평), Aesthetics(미학), Art Production(미술제작) 의 네가지 영역을 포함한 통합교육으로, 미국의 미술교육 학자인 엘리어트 아이스너(E. W. Eisner, 1933~)가 발표한 미술교육 운동이다.

30) 육지연, 2004, 한국과 프랑스의 교사용 미술지도서 내용 비교 분석 연구, p.11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환경과 경험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

다섯째, 아이들의 창작능력은 무한한 것이며, 발견의 법칙은 비결정론과 불연속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의해서 아이의 창작능력은 배가 될 수 있으며 아이를 교육함에 있어서 어떤 규칙이나 정해진 체계를 갖고 있기 보다는 교사 또한 자유로운 사고로 할 수 있도록 한다.[31)]

제2절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개선방안

앞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두 나라의 미술교육은 다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과 앞선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하며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표 16> 우리나라 미술과 교육연구의 문제점

▶ 교과의 특성에 따른 연구에 대한 인식의 부족
▶ 교과내용의 측면에서 실기 표현 중심 교육을 논리화, 객관화시키기 어려움
▶ 위의 두 가지 문제점에 의해 역사적, 학문적 전통이 약함

교과서는 여전히 그 내용에 있어 학년이나 학교 급별의 연속성이나 위계성 없이 반복적인 제시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수업 시수와 단원의 수에 대한 비례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수업시수에 맞게 임의대로 단원을 선택하고 학생들을 지도한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학생들은 타 교과처럼 기초에서 심화과정으로 나아가는 체계적·단계적인 교육이 아닌, 중구난방식의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선행되어야 할 내용을 선정하고 미술교과 수업에 배정된 수업시수를 고려한 교과로서의 재

31) "위의 책, pp118-.11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학년과 학교 급별에 따라 독립적인 교육내용이 아닌,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연계 가능하고 지속성 있는 교육내용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교육내용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시 하는 점이 이러한 학년간, 학교 급별의 연계성과 지속성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교사용 지침서를 통하여 각 해당학년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내용이나 자료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학년간의 위계적인 교과내용과 학년별 국가 공통의 교육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습주제 식의 간단한 제시 내용이며 교사가 수업하는 학생과 수업 환경들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구체적인 수업 프로그램으로 자유롭게 가르치고 있다.

두 번째 방안으로 미술교육 목표에 맞는 평가의 마련하기 위하여 결과물 중심의 기술에 대한 평가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미술교과는 개인의 감성과 주관성이 존중되는 교과로서 서로 다른 감정이나, 느낌 표현을 존중하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적용시켜 평가하는 것이 미술교육의 가장 난해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미술교육의 평가는 교사의 지도 목표에 대한 것이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도를 확인하고 전인적인 인격형성을 위한 교육의 전반적인 활동이 알맞게 이루어졌는지의 가치를 판단, 그 결과를 통한 개선으로 미술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서 연구한 바와 같이 프랑스는 평가라는 것을 수업과 동등한 학습으로 여긴다. 교사는 단순히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전반의 여러 사항을 점검하고 작품의 의미에 대한 학생의 설명을 통해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학생들을 불어는 물론이고 수업에서 배운 미술 전문 용어들을 자신의 작품 설명에 바로 대입하여 사용함으로서 작품에 알맞은 용어들을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객관화 된 단순 지필평가와 작품결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앞서 말한 미술교육 평가의 목적에 절대 부합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답이 정해져 있는 다른 교과목들처럼 일률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신 미술교과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평가로 전환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을 연구하고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프랑스의 교육 평가방식은 미술교육이 가지는 특성과 그 기능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용함으로써 흠잡을 곳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도적 측면과 사회적 인식 등의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술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입시 제도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예술교육을 토대로 곧바로 시행에 옮기기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현황에 맞는 평가방식을 마련하여 조금씩 미술교육의 목표와 가까워질 수 있는 평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사는 학생들의 결과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토대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부족한 수업시수 등이 평가의 걸림돌이 되더라도 학생들의 수업 태도나 수업 참여 방법, 성실성 등에 대한 것들도 교사 혼자만이 아닌, 학생들의 생각들도 함께 자료로 수집하여 평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교육현장 에서의 학교 미술수업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교사는 기능적인 테크닉이나 표현방법들에 대한 설명만을 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끔 손을 봐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하여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과 표현방법 등에 더 중점을 두어, 그 과정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자기평가서 양식에 대한 좀 더 뚜렷한 기준을 세워 학생들이 교육현장에 정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미술활동에 대한 만족감과 흥미, 느낀 점과 문제점 및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계획 등을 스스로 기록하며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야 말로 개개인의 자기 세계와 주관적인 감정들을 존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미술수업에 있어 학생들의 교과서 및 교사용 지침서의 개정이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대부분이 교사용 지침서를 통하여 교사의 교수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나 그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는'예시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므로 단원에 대한 수업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국정발행제의 체제에서 자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발행제로 전환시키고 새롭고 다양한 내용을 갖춘 교과서 및 지도서가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보조 자료들을 함께 제공하여 미술 지도서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구성을 갖추도록 돕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을 향상시키되 우리나라의 현황에 적합한 프로그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으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과의 연계 수업을 통해 미술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미술교육의 기회를 대부분 공교육에서 가지게 되며, 현재 기능중심의 미술교육은 학생들이 미술과 가까워지기 보다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32] 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술관을 통한 감상교육이야 말로 학생들에게 미술에 대한 거리를 좁히고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는 좋은 학습방법 중의 하나이며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연계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학습효과는 다음과 같다.

<표 17> 박물관·미술관 연계수업의 학습 기대효과

▶ 학생들은 미술관 체험을 통해 수업시간에 교과서의 그림이나 사진 또는 화집으로만 접하였던 작품들을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직접보고 감상함과 동시에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교육적 효과까지도 기대 ▶ 학생들이 경험하는 미술관 체험학습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며 개방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이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 전인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 ▶ 미술관 체험을 통한 학습은 학생들에게 기능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미술을 즐기고 이해함으로써 관심과 흥미를 키워줄 수 있음

따라서 학생들은 미술관 체험을 통해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직접체험을 통해 다양한 범위로의 개념 확장, 미술교육의 적의 하나인 미적안목이 육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관 교육이 갖는 교육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학교와 미술관의 연계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꾸준히

32) 손영희, 2010, 한국 미술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p5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유지하여 둘 중 어느 한 쪽에 집중되거나 치우치지 않는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학교의 수업이나 교육과정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미술관 또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 위주의 감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미술관 관련 교육과 학습 단원들을 참고하여 미술품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언어와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해야 한다. 미술관에서 한두 시간씩 하는 설명 위주의 감상 수업이나 프로그램은 작품을 실제로 봤다는 것 외에는 교실에서의 미술수업과 별다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의 문화공간 속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다.[33]교사는 미술관을 방문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전시에 대한 설명과 작가와 관련한 지식수업을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학습은 작품에 대한 사고의 확장과 더불어 미술의 안목을 넓히고 작품에 대한 비평, 선행학습을 통한 미술관수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2017년 등록된 미술관에 대한 자료이며'한국 사립미술관 협회'와'박물관 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총 176개의 미술관이 현재 등록,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이다.

<표 18> 국내 등록미술관 총 현황

시·도	미술관			
	소재	국·공립·대학	사립	비회원관
강원	8	3	3	2
경기	38	6	13	19
경남	7	2	3	2
경북	7	2	2	3
광주	8	2	6	
대구	2	2		

33) "위의 책, p.5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전	5	1	3	1
부산	3	1	2	
서울	41	7	19	15
인천	3	1	2	
전남	19	5	10	4
전북	9	3	2	4
제주	14	4	5	5
충남	4		4	
충북	8	2	4	2
합계	176	41	78	57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총 미술관수의 50% 정도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현격한 격차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인 여건에서 우리나라는 프랑스처럼 미술관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더라도 부족한 수업시수와, 교사와 학생 수의 지나친 불균형으로 인하여 교사 한명이 많은 학생들을 인솔하여 미술관 체험수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마지막 다섯 번째 방안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와 같은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다. 2007년 교육과정부터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ICT를 활용한 교육이 거듭 강조되고 있으며, 미술의 내용체계 중 표현 방법으로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 방법을 탐구하여 나타내기,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ICT와 멀티미디어, 사진, 영상을 활용한 학습 등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는 점점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제안, 정보의 수집과 처리 능력 등 새로운 상황에 대처 가능한 능력 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각적인 특성이 가장 큰 미술교과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방법의 매체 활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앞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의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어렵지 않게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장 학습을 통한 직접적인 체험과 더불어 ICT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체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테면 미술관에서 ICT를 이용하여 미술관과 박물관의 전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웹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거리상의 제약으로 체험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의 PAC 수업을 참고하여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 하에 예술가와 교사가 함께 지도하는 융합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흥미롭게 느끼게 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 다양화 되어가는 21세기에 미술교육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크기는 상당해 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미술교육의 필요와 중요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해해야 하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향제시가 확실해야 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V. 결 론

현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전쟁이라는 말을 실감 할 정도로 각 나라의 전통과 예술·문화를 상품화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자국의 고유한 문화상품을 연구하고 이를 개발하여 세상에 내놓고 있으며, 아시아 중에서는 일본이 동양적인 특성을 잘살려 서양의 문화상품에 도전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전쟁이 확산되는 이유는, 문화·예술 상품이 인간의 욕구 충족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창의력이 중심이 되는 문화 활동은 이 모든 현상의 동력이 되며, 특히 예술교육을 통해 인간이 조형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적응력과 사고력, 창조성 등을 얻기 때문에 각 나라는 미술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모든 학교에서 예술적인 창작(작품의 작업과정이나 지식)에 관련된 실습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예술 작품의 체험과 실습의 끊임없는 교류로, 모든 학생들이 점진적인 예술 문화를 배우게 된다. 또한 다른 학과목과 가능한 연계 수업을 강조하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조형예술 교육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시·청각 자료(사진, 화집, 컴퓨터, 영화, 비디오) 들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실제 작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여건이 된다면 학생들에게 문화유산, 미술관, 박물관, 화랑 아틀리에 등을 견학시켜 눈앞에서 직접 작품을 보고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들을 제공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자국의 정체성과 다양성의 문화를 끊임없이 찾아 문화 예술의 선진국으로서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술교육 또한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 정치적 큰 혼란 속에서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겉으로는 창의성을 요구하나 실제의 미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는 교육환경이나 시설, 수업일수 등의 문제를 이유로 기능이 중심이 되는 교육만을 유지하고 있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실정이었으며, 이론과 실제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의 반복으로 결실은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에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 더 이상은 10년 이상의 미술교육을 받고도 미술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술을 알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일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통하여 삶속에서 배우는 미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21세기의 문화예술 시대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미적안목을 육성하고 창의성의 계발, 감성의 함양 및 조형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미술의 이해교육과 표현, 감상교육을 통합하여 앞서 말한 네 가지 특성을 균형 있게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는 몇 몇 사람에 의해 형성하고 발달되는 것이 아니며 문화예술 정책과 교육이 사회에 인지·수용됨으로써 모두에게 생활화, 대중화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인지하여 앞으로의 미술교육은 교육부나 학교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예술 기관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속적이고 위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아이들과 그 환경에 맞추어 자율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이 미술 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이 창조자로써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하여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미술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미술교육이 가진 본래의 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는 분명 미술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들도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단행본

김정, 『兒童의 美術敎育 硏究』, 창지사, 1997.p.61

학위논문

손영희, "한국 미술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프랑스의 미술교육과 비교분석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송선영, "한국과 프랑스 미술교육 비교연구 :초등학교 미술교육과정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박미정, "한국과 프랑스의 중학교 미술교육 비교 연구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박솔란, "중등미술교육의 현황 및 전통회화에 관한 수업방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육지연, "한국과 프랑스의 교사용 미술 지도서 내용 비교 분석 연구 : 초등학교 3 · 4학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정지운,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현황 및 대안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차지언, "우리나라와 프랑스 미술교육의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최은주, "중학교 미술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 현대 미술교육의 흐름을 반영하는 관점에서 "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기영, "한국과 프랑스의 중학교 미술교육과정 비교분석연구 : 2009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학술지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361호, (2011), p.16.

이규민,“프랑스의 미술교육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中心으로” 『韓國 初等敎育』, (2000), p.72.

이은적, "미술교육 내용 구성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전환 -프랑스 의무교육제도 - 초등학교와 중학교- 속의 미술교육 내용의 구성에 관한 인식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자격연수, 학술저널』, (2001), p.97

비문헌자료

EBS 교육방송, 세계의 교육현장: 창의력을 키우는 프랑스 미술교육 1-4편, VOD, EBS 교육방송, 2010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164618&thread=07r02

http://blog.naver.com/moaart01/220635645682

http://blog.naver.com/ves1205/100087658702

http://www.kocis.go.kr/kocc/view.do?seq=6200&langCode=lang001&menucode=menu0150&menuType=Kocis_Board_Ovr_Ctr&ctrcode=CTR0002

http://blog.naver.com/drskins/220808970891

http://noonnoppiblog.com/221073842901

Collection @ chosun